

우연 요인이 수단-목표 관계의 지각에 미치는 효과

A Study on the Effect of Happenstance Factors on the Perception of Means-Goal Relationship

이병관[†] · 김성은
Byung-Kwan Lee[†] · Sung-Eun Kim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Kwangwoo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how intrinsic acceptance for happenstance(IAH) affects evaluation of the means to achieve additional goals when the additional goals are happened to be added to the original means-goal link. Specifically, participants were ask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means(e.g., exercise and saving) to achieve additional goals which are either more or less relevant to the means. The result showed that participants with high IAH were more likely to think that the original means is effective to accomplish additional goals than those with low IAH. This pattern, however, was found only when the additional goals are relevant to the means. When the relevance of the additional goals to the means was low, there was no difference i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means to achieve additional goals between participants with high and low IAH. Future research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goal-systems theory and intrinsic acceptance for happenstance were discussed.

Key words: Planned Happenstance Theory, Goal Systems Theory, Means-Goal Link

요약

본 연구는 특정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추가적인 목표가 탐색되었을 때, 추가 목표에 대한 수단의 효과성 평가가 개인의 내재적인 우연수용성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연수용성이 높거나 낮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수단(운동과 저축)과 관련성이 높거나 낮은 추가적인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수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연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은 우연수용성이 낮은 사람들보다 원래의 목표외에 추가적인 목표들에 대해서도 현재의 수단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추가적인 목표가 원래의 수단-목표 연결과 관련성이 높을 때에만 발견되었다. 즉, 추가적인 목표가 원래의 수단-목표 연결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는 우연수용성이 높거나 낮은 사람들 간의 추가적인 목표에 대한 수단의 효과성 평가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목표 체계 이론(goal systems theory)과 우연수용성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제어: 계획된 우연 이론, 목표 체계 이론, 수단-목표 관련성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44196).

† 교신저자 : 이병관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E-mail : byungkwanlee@kw.ac.kr

TEL : 02-940-5427

FAX : 02-941-9214

1. 서론

사람들은 일상의 다양한 목표추구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체력증가를 위해 운동을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당신은 헬스트레이너 또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 체력증가에 도움이 되는 운동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운동방법을 활용하여 체력증가를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해당 운동방법은 체력증가 뿐만 아니라 체중감소를 돕기 위해서도 자주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이와 같은 운동방법을 여전히 가치 있고, 효과적이라 판단할 것인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해줄 수 있는 이론으로 목표 체계 이론(Goal Systems Theory)이 있다. 목표 체계 이론의 선행 연구들은 하나의 수단이 단일의 목표를 달성할 때 보다 다중의 목표를 달성할 때, 수단의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Kruglanski, Shah, Fishbach, Friedman, Chun, & Sleeth-Kepper, 2002; Zhang, Fishbach, & Kruglanski, 2007). 따라서 하나의 운동수단이 체력증가라는 목표 외의 체중감소와 같은 추가적인 목표 또한 달성가능하다고 여겨진다면, 해당 운동수단의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목표 체계 이론의 선행 연구들은 다중의 목표가 모두 같은 시점에서 탐색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 목표가 추가적으로 탐색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특히, 운동이나 저축 등 장기적인 노력을 요하는 수단의 경우 초기의 목표탐색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목표가 추가적으로 탐색되는 상황이 보다 일반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Zhang과 동료들(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수단에 대한 가치평가 과정을 활용하여, 예상하지 못한 목표가 추가적으로 탐색되는 상황에서의 수단에 대한 가치평가를 확인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처하는 개인적 성향의 조절적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1.1. 목표 체계 이론과 수단-목표 연결강도

사람들의 선택과 의사결정이 목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는 많다(Aarts & Dijksterhuis, 2003; Gollwitzer & Moskowitz, 1996). 이때의 목표는 목표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들과 연결될 수 있는데, 이러한 목표와 그에 관련된 수단을 인지적으로 조직화 하려는 시도는 목표 체계 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졌다(Fishbach, Friedman, & Kruglanski, 2003; Kruglanski et al., 2002; Shah & Kruglanski, 2003).

목표 체계 이론에 따르면 각각의 목표는 몇 개의 성취 수단과 연결(Equifinality)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각 수단 역시 몇몇의 목표와 연결(Multifinality)될 수 있다(Aarts & Dijksterhuis, 2000; Kruglanski et al., 2002). 이때, 수단이 다중의 목표와 연결되는 상황은 운동, 저축과 같이 장기적인 노력을 요하는 행동에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체력증가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헬스 트레이너로부터 특별한 운동수단을 제시받았고, 이와 같은 운동수단이 체중감소, 숙면 등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이다.

사람들은 자기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특정한 수단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는 수단이 얼마나 많은 목표를 성취하게 해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즉, 다중의 목표를 달성 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을 매력적으로 여길 수 있다. 이는, 하나 이상의 목표를 달성 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은 목표달성의 결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Emmons & King, 1988; Fishbach & Dhar, 2005), 원래의 목표 외에 추가적인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수단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Thompson, Hamilton, & Rust, 2005).

그러나 다중의 목표를 달성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은 개별 목표와는 더 낮은 연결강도를 지각하게 만들 수 있다. Zhang과 동료들(2007)의 연구에서는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 질환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다중목표 달성가능)조건보다 심혈관 질환 또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단일목표 달성가능)조건에서 유산소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여러 목표들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매력적으로 여길 수는 있지만, 개별 목표와는 관련이

낮은 것으로 지각하여, 개별 목표를 달성하기에 수단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Kruglanski et al., 2002; Zhang et al., 2007).

이러한 다중의 목표는 초기의 목표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앞서 운동의 예시에서, 체력증가를 위해 헬스 트레이너로부터 추천 받은 운동을 시작하였으나, ‘운동을 하다 보니’ 추천 받은 운동이 체중감소, 숙면 등의 목표도 달성 가능하게 해 주는 운동임을 알게 되는 경우이다. 즉, 다중 목표를 달성 가능하게 하는 수단에 대한 가치 평가에 있어 다중목표들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평가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Zhang과 동료들(2007)의 연구를 비롯한 수단-목표 연결강도에 대한 지각을 다룬 많은 연구들에서는 다중의 목표를 동시에 제시한 상황에서의 수단에 대한 가치평가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초기의 목표 외에 예상치 않은 추가적인 목표가 제시되는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중의 목표를 달성가능하게 하는 수단에 대한 가치평가에 있어, 최초의 목표를 평가할 시점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목표가 탐색된 상황에서의 수단에 대한 가치평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1.2. 계획된 우연 이론과 우연에 대한 수용

목표달성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목표들의 탐색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일상의 많은 경우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경험한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건들은 최초의 목표와 목표달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목표달성을 추구함에 있어 예기치 못한 사건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통제하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등의 행동을 취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반드시 목표달성에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Krumboltz와 Levin(2010)은 직업과 진로 선택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건(우연적인 사건)들을 경력의 기회 또는 실패로 만드는 개인적 성향이 존재함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개인적 성향을 우

연수용성이라 한다. 사람들은 개인이 가진 우연수용성에 따라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형태의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른 형태의 판단이 개인의 성공을 바꿀 수 있음을 제안한다.

Krumboltz(2009)의 계획된 우연 이론(Planned Happenstance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기회로 만들어 낼 가능성은 개인에게 달려있음을 제안한다. 이때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지각 요인이 요구되며, 이 다섯 가지 요인은 호기심, 인내성, 유연성, 낙관성, 위험추구로 구성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이러한 다섯 가지 특성을 갖춘 개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 직면하였을 때,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일을 보다 개방적으로 탐색하고,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하며, 문제 상황의 위험을 감수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긍정적 경험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도와주며, 이를 삶에서 유용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즉, 이 관점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건은 부정적인 문제 상황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 할 수 있는 대상이며,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처하고, 추구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Krumboltz, Mitchell, & Gelatt, 1975; Mitchell & Krumboltz, 1990).

이러한 우연적 사건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진로 상담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는데(Pryou & Bright, 2006), 이는 현대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연적인 사건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연적 사건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통한 진로설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Song & Lee, 1997; Gelatt, 1989; Mitchell et al., 1999).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우연적 사건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ee & Lee, 2013; 2014). 이는 현대인들이 진로의 맥락에서 뿐만 아닌 일상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연적 사건과 변화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기에 의사결정 및 소비의 맥락에서도 우연적 사건의 영향력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개념이

다(Lee, 2013). 그러나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의 효과성 판단이라는 문제에 있어 개인의 우연수용성을 고려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러한 계획된 우연 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우연에 대한 수용정도는 초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수단을 사용하던 중 예기치 못하게 나타나는 추가적인 목표들에 대해 다른 형태의 판단을 이끌어 낼 것이다. 즉,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힘든 목표달성 상황에서 우연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비교적 수동적이고, 부정적이며, 목표달성을 이루어 낼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나, 우연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황들에 대해 보다 더 능동적이고, 긍정적이며, 목표달성을 이루어 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특히, 자기통제를 필요로 하는 목표달성과제의 상황에서 우연에 대한 수용성은 중요한 자기조절 자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1: 수단-목표의 관계에서 원래의 목표 이외의 추가적인 목표들에 대한 수단의 효과성 지각은 개인의 우연수용성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우연수용성이 높은 집단은 우연수용성이 낮은 집단보다 예상치 못한 추가 목표들에 대한 수단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우연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우연한 사건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군집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선택에서의 우연 요인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밝힌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우연 요인은 ‘특정 활동을 통한 적성 발견’인 것으로 나타났다(Lee & Shin, 2012). 해당 요인의 구체적인 진술문항은 ‘일본어에 흥미가 생길 무렵, 갑자기 우리학교가 일본 고등학교와 자매 교류를 맺게 되어 일본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일본어가 많이 향상되었다.’, ‘취미생활로 사물놀이 동아리에 참여를 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예술고에 진학을 하게 되고 국악을 전공하게 되었다.’, ‘단순히 호기심만 갖

고 있던 분야가 있었는데 때마침 그와 관련된 동아리 제작제의를 받았고 그에 따라 관련 분야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등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호기심, 관심, 잠재적 능력에 관련성이 있는 활동이 우연한 기회에 추가되었을 때, 이러한 활동이 자신의 적성 발견, 진로 개발에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건이라 평가하였다(Lee & Shin, 2012). 이는 진로 탐색의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우연적인 사건이 개인의 적성이나 관심 영역과 관련성이 높을수록 더 중요한 요인이라 평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서비스 상품 구매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한 우연수용성의 영향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서비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사전기대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한 조건에서는 우연수용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긍정적이고 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으며, 서비스 상품에 대한 만족도, 재 구매의도, 추천의도 또한 우연수용성이 높은 집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비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사전기대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한 조건에서는 우연수용성의 높거나 낮음에 따른 긍정감정, 부정감정, 만족도, 재 구매의도, 추천의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An & Lee, 2014).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단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그 수단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거나 수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어느 정도 기대와 일치할 때 우연수용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사전에 기대할 가능성이 낮거나, 관련성이 낮은 목표는 개인의 우연수용성에 상관없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가설 2a와 가설 2b를 제안한다.

가설 2a: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목표들이 원래 수단-목표와 관련성이 높은 경우, 우연수용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추가적인 목표들에 대한 수단의 효과성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이다.

가설 2b: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목표들이 원래 수단-목표와 관련성이 낮은 경우, 추가적인 목표들에 대한 수단의 효과성 평가가 우연수용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2. 연구

2.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목표달성을 추구하던 도중 예기치 못한 추가적인 목표가 탐색 되었을 때, 수단에 대한 가치평가가 개인의 우연수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또한, 추가적인 목표의 수단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수단에 대한 가치평가에 있어 우연수용성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목표추구과정에서 추가적인 목표가 탐색될 가능성이 높은 운동과 저축수단을 행동수단으로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상황에서 달성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목표 12개씩을 탐색하였다. 12개의 목표는 사전조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최초의 목표, 추가적인 목표로 분류되었다.

2.1.1. 사전 조사

각각의 행동수단을 통해 달성 가능한 12개의 목표들 중 수단과 관련성이 높은 목표와 관련성이 낮은 목표를 선별하기 위하여 22~26세 연령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31명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31명의 참가자는 운동과 저축 각각의 상황에서 달성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12개의 목표들에 대해 ‘해당 목표가 OO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1점-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 7점-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 정도가 가장 크다는 응답 1개를 최초의 목표, 도움 정도가 크다는 응답 2개를 고관련 추가목표, 도움 정도가 작다는 응답 2개를 저

관련 추가목표로 선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Table 1 참고).

2.1.2. 연구 설계 및 참가자

본 연구는 20~29세($M = 23.21$, $SD = 2.61$)의 일반인 199명(남 : 88, 여 : 111)이 참가하였다. 설문은 온라인으로 3일간 진행되었으며, 연구 설계는 2 (우연수용성 : 고 vs. 저) \times 2 (추가목표의 유형 : 고관련 추가목표 vs. 저관련 추가목표)의 집단 간 설계로 구성되었다.

모든 참가자는 고관련 추가목표조건(남 25명, 여 58명), 저관련 추가목표조건(남 52명, 여 52명)의 설문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으며, 두 조건 모두 운동과 저축 시나리오 둘 다를 포함하였다.

연구의 첫 단계에서 모든 참가자들은 체력증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전문가로부터 제시받은 운동과 저축수단을 활용하는 상황을 제시받았으며, 다음 단계는 이어진 별도의 페이지에서 각각의 수단이 달성 가능한 추가적인 목표들을 제시받았다. 이후 모든 참가자들은 내재적인 우연수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기초인구통계변인에 응답한 뒤 설문을 마쳤다.

2.1.3. 독립변인의 측정

우연수용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Lee(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는 진로장면에서 사용되던 우연수용성의 개념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환한 척도이다. Lee(2013)의 우연수용성 척도는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와 같은 5개의 하위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각 요인 당 5개 문항씩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 Goal-Means Items for Exercise and Saving Scenarios

a) Exercise scenario

Goal type	Item	M (SD)
Original goal	To increase stamina	6.13 (0.96)
Related goal 1	To lose weight	5.52 (1.59)
Related goal 2	To sleep well	5.45 (0.99)
Nonrelated goal 1	To have a date	3.81 (1.38)
Nonrelated goal 2	To get a better GPA	4.06 (1.29)

b) Saving scenario

Goal type	Item	M (SD)
Original goal	To be financially independent	6.10 (1.01)
Related goal 1	To manage funds for future	5.94 (0.73)
Related goal 2	To prepare for marriage	5.84 (0.93)
Nonrelated goal 1	To have hobby	4.68 (1.28)
Nonrelated goal 2	To have family harmony	4.52 (1.29)

개인의 우연수용성은 25개 측정문항의 평균을 통하여 산출하였으며(Cronbach's $\alpha=.931$), 전체 참가자의 우연수용성 점수의 중위수(3.76)를 기준으로 중위수보다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우연수용성 고집단, 중위수보다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우연수용성 저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전체 참가자는 97명의 우연수용성 고집단과 102명의 우연수용성 저집단으로 분류되었다.

2.1.4. 종속변인의 측정

모든 참가자들은 ‘전문가로부터 체력증가를 위한 운동수단을 제시받아 이러한 운동을 수행하던 중’으로 설명된 가상의 시나리오를 읽고, 제시받은 운동수단이 체력증가를 달성하기에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하였다. 이후 이어진 별도의 페이지에서 체력증가외의 두 개의 추가적인 목표들(고관련 추가목표-체중감소, 숙면, 저관련 추가목표-이성교제의 기회제공, 성적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을 제시 받았으며, 이때의 추가적인 목표들에 대해 현재의 운동수단이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는지를 7점 척도에 평가하였다(1점-매우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

운동수단과 추가적인 목표들에 대한 평가가 모두 끝난 후 유사한 형태의 저축 시나리오를 제시 받았다. 저축 시나리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저축수단을 제시받아 이러한 저축을 수행하던 중’으로 설명된 가상의 시나리오를 읽었으며, 제시받은 저축수단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에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하였다. 이후 이어진 별도의 페이지에서 경제적 자립외의 두 개의 추가적인 목표들(고관련 추가목표-미래 자금관리의 초석, 결혼자금 마련, 저관련 추가목표-취미활동의 기회제공, 가족의 화목)에 대해 현재의 저축수단이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는지를 7점 척도에 평가하였다(1점-매우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

2.2. 연구 결과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수단의 효과성 평

가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운동수단에 대해서는 성별과 연령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All p 's=n.s.), 저축수단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수단의 효과성 평가가 차이가 나타났다(성별 : $p=.015$, 연령 : $p=n.s.$). 이에, 저축수단은 성별의 효과를 통제된 뒤 결과분석을 수행하였다.

2.2.1. 우연수용성과 추가적인 목표

가설 1은 우연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목표에 대해서도 수단이 효과적일 것이라 평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운동과 저축 시나리오 각각에서 우연수용성 고집단과 저집단에서의 추가적인 목표에 대한 수단의 효과성 평가 값에 대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추가적인 목표에 있어 우연수용성 고집단이 저집단보다 수단이 추가적인 목표들도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운동수단의 경우 우연수용성 고집단($M=5.19$, $SE=0.12$)의 참가자들이 우연수용성 저집단($M=4.79$, $SE=0.12$)의 참가자들 보다 추가적인 목표들에 대해서도 수단이 효과적일 것이라 평가하였으며($F(1,198)=5.650$, $p=.018$), 저축수단의 경우 성별의 주효과를 통제한 우연수용성 고집단($M=5.44$, $SE=0.12$)의 참가자들이 우연수용성 저집단($M=5.08$, $SE=0.12$)의 참가자들보다 추가적인 목표들에 대해서도 수단이 효과적일 것이라 평가하였다($F(2,197)=4.475$, $p=.036$). 따라서 가설 1이 지지되었다.

2.2.2. 추가목표의 수단-목표 관련 정도

가설 2는 추가적인 목표의 수단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수단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 우연수용성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목표가 수단과 관련성이 높은 목표일 때, 우연수용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추가적인 목표에 대해서도 수단이 효과적일 것이라 평가하지만(가설 2a), 추가적인 목표가 수단과 관련성이 낮은 목표일 때, 우연수용성의 높고 낮음은 추가적인 목표에 대한 수단의 효과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가설 2b).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2 (우연수용성 : 고 vs. 저) × 2

Table 2. Independent t-test Results for Different Goal Conditions

a) Exercise additional goal					b) Saving additional goal				
Goal type	Planned happenstance	N	M (SD)	t	Goal type	Planned happenstance	N	M (SD)	t
High relevance goal condition	High	46	5.90 (0.90)	2.357**	High relevance goal condition	High	46	5.91 (1.01)	1.937*
	Low	48	5.43 (1.04)			Low	48	5.52 (0.95)	
Low relevance goal condition	High	51	4.55 (0.98)	1.616	Low relevance goal condition	High	51	4.92 (1.15)	0.644
	Low	54	4.22 (1.08)			Low	54	4.77 (1.28)	

* $p < .10$, ** $p < .05$

(추가목표 유형 : 고관련 추가목표 vs. 저관련 추가목표)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운동과 저축 시나리오 모두 우연수용성의 주 효과(운동 $p=.006$, 저축 $p=.031$), 추가목표 유형의 주 효과(운동 $p=.000$, 저축 $p=.000$)는 유의하였으나, 상호작용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운동 $p=.605$, 저축 $p=.384$). 따라서 가설 2a와 가설 2b는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가설 2a와 가설 2b의 예상과 일치하는 방향성은 관찰할 수 있었다. 운동과 저축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고관련 추가목표와 저관련 추가목표 각각에 대해 우연수용성 고집단과 저집단에서의 추가적인 목표에 대한 수단의 효과성 평가 값에 대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운동과 저축 수단 모두에 있어 수단과 관련성이 높은 추가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우연수용성 고집단이 저집단보다 수단이 추가적인 목표들도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수단과 관련성이 낮은 추가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우연수용성 고집단과 저집단간의 수단의 효과성 평가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참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동수단의 경우 수단과 관련성이 높은 추가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우연수용성 고집단($M=5.90$, $SD=0.90$)의 참가자들이 우연수용성 저집단($M=5.43$, $SD=1.04$)의 참가자들 보다 추가적인 목표들에 대해서도 운동수단이 효과적일 것이라 평가 하였으나($t=2.357$, $p=.021$), 수단과 관련성이 낮은 추가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우연수용성 고집단($M=4.55$, $SD=0.92$)의 참가자들과 우연수용성 저집단($M=4.22$, $SD=1.08$)의 참가자들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621$, $p=.109$).

저축수단의 결과 또한 운동수단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수단과 관련성이 높은 추가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우연수용성 고집단($M=5.91$, $SD=1.01$)의 참가자들이 우연수용성 저집단($M=5.52$, $SD=0.95$)의 참가자들 보다 추가적인 목표들에 대해서도 저축수단이 효과적일 것이라 평가하였으나($t=1.937$, $p=.056$), 수단과 관련성이 낮은 추가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우연수용성 고집단($M=4.92$, $SD=1.15$)의 참가자들과 우연수용성 저집단($M=4.77$, $SD=1.28$)의 참가자들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 < 1$, $p=.521$).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3. 논의

본 연구는 특정 수단을 활용하여 원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 예기치 못한 추가적인 목표가 탐색되었을 때, 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 우연수용성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연수용성이 높거나 낮은 참가자에게 특정 수단(운동과 저축)과 관련성이 높거나 낮은 추가적인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수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연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은 우연수용성이 낮은 사람들보다 원래의 목표외의 추가적인 목표들에 대해서도 현재의 수단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지지).

이러한 결과는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에 있어 특정 수단을 통해 달성 가능한 추가적인 목표가 탐색 되었을 때, 수단이 추가적인 목표들마저도 효과적으로 달성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개인의 우연수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목표 체계 이론에서 주장하는 목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단-목표 연결강도를 약하게 평가하게 되는 희석효과(Dilution Effect)를 우연수용성이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추가적인 목표가 원래의 수단-목표 연결과 관련성이 높을 때에만 발견되었다. 즉, 추가적인 목표가 원래의 수단-목표 연결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는 우연수용성이 높거나 낮은 사람들 간의 추가적인 목표에 대한 수단의 효과성 평가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가설 2a와 2b의 방향성 확인).

즉, 수단과 목표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기댓값이 낮은 목표의 경우, 개인의 우연수용성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수단의 효과성을 낮게 평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연수용성이 높다고 하여 특정 수단이 어떠한 목표에든 상관없이 모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가설 2a와 2b를 설명함에 있어 추가적인 목표의 관련성 정도와 우연수용성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는 한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저관련 추가목표의 경우 사전 조사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목표들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점 척도를 기준으로 4점 정도의 중간값을 획득한 목표들이다. 따라서 해당 목표들을 저관련 목표가 아닌 중립적인 목표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Table 1 참고). 그러나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인 우연수용성에 따른 수단의 효과성 평가의 차이는 고관련 추가목표의 조건에서만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 엄격한 방식으로 통제된 저관련 추가목표를 제시한다면 충분히 가설 2a와 2b를 설명할 수 있는 상호작용 효과도 기대 가능하다.

진로나 학업목표달성의 맥락에서 Krumboltz(2009)의 계획된 우연은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목표 추구상황에 대해 우연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

은 이러한 상황을 보다 더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이러한 주장을 확장할 수 있다. 즉, 우연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은 평소 특정 수단과 관련이 있는 여러 목표들에 대해 폭넓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성이 낮은 목표들에 대해서는 수단의 효과성을 낮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따라서 향후 우연적 사건을 대처하는 개인의 내재적 성향을 연구함에 있어 수단과 목표의 관련성 수준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첫째, 운동이나 저축을 장려하는 공익 캠페인 제작할 때, 기본적으로 운동이나 저축이라는 수단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추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캠페인 메시지에 운동이나 저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목표를 제시할 경우에는 사람들의 우연수용성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우연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은 특정 수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추가적인 목표를 수용하고 자신의 행위(즉, 운동이나 저축)가 추가적인 목표들까지 달성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반면에 우연수용성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는 추가적인 목표를 제안하는 것이 오히려 특정 수단의 효과성을 낮게 지각하게 만들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또 다른 실무적 시사점은 특정 수단과 지나치게 관련성이 낮은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우연수용성의 고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도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달성 가능한 다양한 목표들을 무조건적으로 많이 제시하는 것이 아닌, 특정 수단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를 선별하여 캠페인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교육, 건강이나 친사회적 행동을 설득하고자 할 때, 사람들에게 특정 수단이 새로운 목표의 성취에 유용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는(예를 들면, 채소의 섭취가 감정 통제에 도움이 된다) 사람들의 우연수용성 수준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새로운 목표가 수단과의 관련성이 높다면 우연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

감 없이 설득메시지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만, 우연수용성이 낮은 사람들은 설득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연수용성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메시지의 반복노출과 같은 추가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설득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 중 저축수단을 활용하는 상황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추가적인 목표들에 대해서도 수단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평가하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이는 저축수단을 활용함에 있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보다 많은 대안적인 목표들을 예상하고 저축 행동을 시작하는 것으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수단의 유형에 따라 성별 또는 다른 변인의 영향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단과 추가적인 목표와의 관련성을 조작함에 있어 개인차가 고려되지 않았다. 즉, 우연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이 관련성이 높은 목표들에 대해 수단을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추가적인 목표들을 관련성 있게 묶는가에 대한 문제를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하여 개인적 수준에서의 수단과 목표의 관련성 조작이 고려된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일반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FERENCES

- Aarts, H. & Dijksterhuis, A. (2000). Habits as knowledge structures: automaticity in goal-directe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1), 53-63.
- Aarts, H. & Dijksterhuis, A. (2003). The silence of the library: environment, situational norm, and 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18-28.
- An, E. M. & Lee, B. K. (2014). The interaction effect of perception of happenstance and pre-expectancy disconfirmation on consumer response to service product.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25*(1), 247-266.
- Emmons, R. A. & King, L. A. (1988). Conflict among personal strivings: immediate and long-term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40-1048.
- Fishbach, A. & Dhar, R. (2005). Goal as excuses or guides: The liberating effect of perceived goal progress on choi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2*(3), 370-377.
- Fishbach, A., Friedman, R. S., & Kruglanski, A. W. (2003). Leading us not into temptation: Momentary allurements elicit overriding goal ac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 296-309.
- Gelatt, H. B. (1989). Positive uncertainty: A new decision-making framework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2), 252-256.
- Gollwitzer, P. M. & Moskowitz, G. B. (1996). Goal effects on action and cognition. In E. T. Higgins & A. W. Kruglanski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pp. 361-399), New York: Guilford Press.
- Kruglanski, A. W., Shah, J. Y., Fishbach, A., Friedman, R., Chun, W. Y., & Sleeth-Keppler, D. (2002). A theory of goal system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4*, 331-378, San Diego: Academic Press.
- Krumboltz, J. D. (2009). The happenstance learning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2), 135-154.
- Krumboltz, J. D. & Levin, A. S. (2010). *Luck is no accident: Making the Most of Happenstance in Your Life and Career*. Impact Publishers.
- Krumboltz, J. D., Mitchell, A., & Gelatt, H. G. (1975). Applications of social learning theory of career selection. *Focus on Guidance, 8*(3), 1-16.
- Lee, B. K. (2013). A Study on the Effects of Locus of Control and the Perception of Happenstance on Lif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4*(1), 37-54.
- Lee, B. K. & Lee, G. H. (2013). The Effect of Priming Attribution of Chance versus Effort on Task Satisfaction and Re-performance Intention.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and Sensibility, 16*(4), 535-544.

Lee, B. K. & Lee, G. H. (2014). The Effect of Good and Bad Luck on Reasoning.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and Sensibility*, 17(3), 39-48.

Lee, S. H. & Shin, S. S. (2012). Concept Mapping Analysis of Happenstance in Career Choice.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3(1), 1-20.

Mitchell, K. E. & Krumboltz, J. D. (1990). Social learning approach to career decision making: Krumboltz's theory.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pp. 145-196), San Francisco: Jossey-Bass.

Mitchell, K. E., Levin, S., & Krumboltz, J. D. (1999). Planned happenstance: Constructing unexpected career opportuniti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7(2), 115-124.

Pryor, R. G. & Bright, J. E. (2006). Counseling chaos: Techniques for practitioners.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43(1), 9-17.

Shah, J. Y. & Kruglanski, A. W. (2003). When opportunity knocks: bottom-up priming of goals by means and its effects on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109-1122.

Song, B. K. & Lee, C. S. (1997). The critics on the normative career development theory.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4(1), 329-337.

Thompson, D. V., Hamilton, R. W., & Rust, R. T. (2005). Feature fatigue: When product capabilities become too much of a good thing.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2(4), 431-442.

Zhang, Y., Fishbach, A., & Kruglanski, A. W. (2007). The dilution model: how additional goals undermine the perceived instrumentality of a shared pa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3), 389-401.

Appendix A: 운동 시나리오

다음 제시되는 시나리오는 여러분이 체력증가를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나리오를 읽고, 본인 기준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당신의 체력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당신이 적어도 주 3회 이상 하루 20-30분의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 정도의 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적어도 주 5회, 하루 30분의 가벼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당신은 체력증가를 위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Appendix B: 저축 시나리오

다음 제시되는 시나리오는 여러분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나리오를 읽고, 본인 기준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저축은 당신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당신의 월 수입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저축 계획을 세우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월 수입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원 정도를 저축에 투자하고, 20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체 소득의 절반을 저축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당신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접수: 2015.08.26

수정접수: 2015.11.06

게재확정: 2015.12.11